

구도심 주민들 “주차·치안 문제 해결 시급”

단독주택 거주민 105명 설문 10명 중 4명 주거환경 불만족 “저층주거지 재생 기금 필요”

구도심의 저층주거지, 즉 단독주택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차공간 부족, 노후, 편의시설 부족, 치안 불안 등의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과반 이상이 현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독주택지역의 철거 및 재개발 중심의 정비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감안해 주거지 개

선을 지원하는 대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 나강열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논문 ‘기성기까지 저층주거지역 재생을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에 따르면 동구 저층주거지 주민 105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57.1%가 현 주거지의 단점이 해결되면 계속 거주하겠다고 응답했다. 현 거주지의 단점으로는 주차공간 부족(18.1%)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유지 관리 어려움(16.2%), 치안 불안(13.3%), 생활편의시설 부족(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의 63.8%가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 가격 저렴’(26.3%)과 ‘직장과 근접’(22.2%)이 그 주요 이유였다.

응답자의 38.8%가 주거 환경 전반에 불만족하고 있었으며, 38.1%는 소음, 33.0%는 주택 성능 등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광주시 면적 가운데 주거지역은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저층주거지인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각각 0.18㎢와 19㎢로, 25.4%를 점유하고 있다. 저층주거지는 북구와 동구, 광산구 일부 지역에 산재돼 있으며, 특

히 구도심인 동구에 집중돼 있다.

동구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은 모두 3669동으로, 이 가운데 30~40년 미만이 521동(14.2%), 40년 이상이 1085동(29.6%)로, 10곳 중 4곳이 노후된 상태다.

나강열 책임연구원은 “공급이 아니라 수요를 감안한 저층주거지의 재생방안을 마련하고, 개별 주택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중상향을 통해 고층아파트를 짓는 경우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특별목적기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chadol@

광주시, 평화맨션 주민에 임차비용 용자

지난 2015년 붕괴 위험에 직면했던 북구 중흥동 평화맨션 이주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광주시가 최근 2년간 22세대에 5억여원의 주택임차비용을 용자 지원했다.

시는 재난관리기금에서 본인 신청금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거주기간 무이자 조건으로 용자를 실시했다.

아파트 붕괴 우려에 따라 입주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피 명령을 이행한 이주 주민들에게 주택 임차비용의 용자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다.

시는 이와 함께 유관기관과 협회회의 등 긴밀히 논의해 광주도시공사가 관리

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알선하는 등 이주 주민의 주거 지원에도 힘을 보탰다.

재난관리기금은 모두 873억원을 적립해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9억원의 용자 예산을 광주고 보수보강공사, 동산천 제방보수공사, 재난내·경보 확충 사업, 지진계측기 설치, 설해대책용 자체 구입,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안전진단, 주택임차비용 용자금 지원 등 재난예방과 복구사업에 활용돼 왔다.

이연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의회와 내실 있는 협의를 통해 재난관리기금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합리적이고 적절한 기금 활용으로 재난 예방조치는 물론, 복구 등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8일 광주를 찾아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 및 진행 상황 등을 취재한 해외 스포츠 미디어 관계자들이 윤장현 광주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평생교육원 3주년 로고송 만들어주세요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재단법인 창립 3주년을 기념해 오는 3월 30일까지 로고송을 공모한다.

공모전 주제는 ‘광주 평생학습을 노래하다’이며 개인이나 팀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심사는 주제의 명확성, 공익성, 표현 및 전달성, 대중성 등을 기준으로 이뤄지며 1차 내부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 3차 시민투표를 통해 오는 4월말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선작은 대상(1명·300만원), 최우수상(1명·100만원), 우수상(1명·50만원), 장려상(2명·각 25만원) 등 총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선정된 로고송은 광주평생학습주간 및 진흥원 성과공유파티 등 다양한 행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로고송 공모전은 이메일(gile@gie.kr)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www.gi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기획연구실(600-5223)로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 찾은 해외 스포츠 매체 “세계수영대회 열기 적합한 도시”

세계적인 스포츠 미디어 관계자들이 8일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도시인 광주를 찾았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윤장현, 이하 조직위)에 따르면 이날 광주를 찾은 해외 미디어단은 개최도시인 광주의 대회 준비 및 진행 상황 등을 취재했다. 또 조직위원장이 윤장현 시장과 조영택 사무총장을 상대로 인터뷰한데 이어, 주경기장인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을 찾았다.

윤 시장은 이들에게 “1980년 광주의 아

름 이후, 광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주도하고, 독재에 신음하는 제3세계 국가들에게 희망이 됐다”면서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이 같은 광주의 도시 정체성과 잘 어우러져 전 세계에 평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스포츠 미디어단은 “대회 슬로건인 ‘Dive into Peace’는 광주의 도시특성을 잘 드러내는 좋은 슬로건”이라며 “광주가 올림픽에 버금가는 메가 스포츠대회를 개최할 적합한 도시”라며 공감을 표했다.

또 조영택 사무총장은 “2019년 세계수영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최적의 계획을 세웠다”며 “선수들의 경기력, 경기장간 거리 및 스폰서, 파트너 특히 미디어들의 니즈(needs) 등을 고려해 최고의 경기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광주를 찾은 해외 스포츠 매체는 어라운드링스(Around the Rings), 프랑쥬(Francisjeux), 인사이더게임즈(Insidethegames.biz), 스포트칼(Sportcal), 텐센트(Ten Cent), 카시메리니(Kathimerini) 등 6곳이다. /윤현석기자chadol@

평창올림픽 오늘부터 문화전당서 생중계

평창 동계올림픽의 열기를 함께 할 광주 라이브사이트가 9일부터 대회가 종료되는 25일까지(설 연휴 제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아시아문화광장에서 운영된다.

라이브사이트에서는 문화전당 내 미디어아트월의 대형 전광판을 통해 대회 실황

을 중계하고, 매일 오후 전문댄스 공연, 미술,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동계올림픽 대회를 즐기는 한편, 광주 라이브사이트는 평창올림픽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대회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광주시와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회 공동주관으로 운영되며, 코카콜라와 CJ에서는 관람객에게 배부할 콜라와 생수를 후원한다.

라이브사이트는 올림픽 개최도시(평양, 강릉, 정선)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에 설치되며 운영되지 않는 지역은 공연 차량을 활용해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윤장현 시장, 북구민들과의 대화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 6일 서구청에 이어 8일 오후 두 번째 순방지인 북구청 회의실에서 ‘북구민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윤 시장은 먼저 우산동에 위치한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자활생산물 공동판매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민원봉사과와 토지정보과를 차례로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현안보고에서는 북구가 추진하고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기업사랑 실천 명품 강소기업 육성 ▲첨단3지구(광주R&D 특구), 광주 드론파크 조성 등 주요업무와 함께 복합문화복지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4건의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시에 건의했다.

시장과 대화에서 주민들은 ▲건국동에 이어 8일 오후 두 번째 순방지인 북구청 회의실에서 ‘북구민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윤 시장은 먼저 우산동에 위치한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자활생산물 공동판매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민원봉사과와 토지정보과를 차례로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윤장현 시장은 “북구는 대한민국을 바꾼 역사의 현장 전남대가 위치하한 의미는 지역으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저항의 힘을 참여와 창조의 힘으로 바꿔 우리 아이들이 넉넉하고 따뜻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당부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찾아가는 문화 한마당 광주시시설공사(사장 김성호)는 8일 광주시 북구 우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 공연자 30여명과 함께 ‘찾아가는 지하철 예술무대’를 가졌다. 이날 자원봉사 공연자들은 사물놀이, 우리 춤, 색소폰 공연 등을 마치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제공>

건물임대 | 병원적합 |

건물명 일신방직 내 건물
위치 광주 북구 임동 100-64번지(나동)
대지면적 5,464㎡
연면적 4,792,83㎡
용도지역 일반공업지역(병원등 용도변경 가능)

층별	면적(㎡/평)
지하	499.1㎡(151평)
1층	655.2㎡(198평)
2층	1,064.2㎡(322평)
3층	1,064.2㎡(322평)
4층	1,064.2㎡(322평)
계	4,346.9㎡(1,315평)

임대료 별도협의(리모델링 비용지원)
권장업종 병원/학원등
장점 도로접(2차선 양방향), 시내중앙, 일신방직 직영임대

임대문의 062-510-5120
일신방직 관리팀

기숙사가 완비된 신학교/200명 숙식 가능 광주바이블칼리지

NAVER

- ▶ 개혁주의 보수교단에 속한 유명 교수들의 수준높은 강의
- ▶ 대한 예수교 성서총회 인준 신학교로 졸업후 목사(안수)여목사(제도)
- ▶ 오랜 경력의 교수들이 담당하는 개혁신학 강의와 구체적인 풍성한 가르침
- ▶ 문화사역과 헌정 중심의 실재적인 수업

광주바이블칼리지 입학안내

1. 모집기간 : 수시모집
2. 모집인원 : 월요일반, 저녁반(월, 화), 토요일반 30명 내외
3. 구비서류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4. 접수처 : 본교 행정실
5. 등록금과 장학혜택에 관해서는 학교로 문의 바랍니다.

◆ 신학연구과 교수진 : 이원수학장 외 16명 (교수진 대부분이 합동교단 소속임)
◆ 목회자 성경대학원 교수진 : • 정용삼 목사 (광주바이블칼리지)
• 고경태 목사 (주님의 교회)
• 최사채 목사 (영산제일교회)

광주바이블칼리지 전남 담양군 무정면 중리도동길 42-34
광주국제기독교대학 Fax. 061-381-1367

상담문의 ☎ 061-381-0000/1365
H. 010-3759-9774, 010-3636-9200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